



이종현 사무국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요란스러웠던 여름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강원도 인제, 평창 등 산간마을의 산줄기는 갈기갈기 찢기고 수마가 활키고 간 뒷자리에는 돌더미 위에 덜 여문 감자들이 하얀 속살을 들어내다 못해 퍼렇게 멍이 들어 나뭇굴고 있었습니다.

소에게 먹일 사료가 없어서 밭을 동동 구를 때에 몇 십리를 멀다얹고 걸어서 사료포를 날라주는 축협 직원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결실의 계절 9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늦더위와 뜨거운 태양아래 벼알이 여물고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은 수확의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우리 축산업계도 마음 편치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여년이상 열심히 개량을 하고 좋은 혈통의 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르셀라」 때문에 젊음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보배같은 소들이 흙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회원님의 가슴은 아마도 새카맣게 타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수해의 피해를 입으신 회원님! 부르셀라에 감염되어 소를 폐물하신 회원님! 직접 가뵙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

최근 축산업계에서는 6대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5여개 축산단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대 현안을 살펴 보면

- 한미 FTA 협상저지
- 농지법개정
- 도축세 폐지
- 가축분뇨자원화
- 식품안전처 신설 반대
- 축사기반 시설 부담금 면제 등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는 사항들이нде도 언제인가부터 우리와 함께 생활해온 같은 농민들에게서도 축산업이 마치 혐오산업으로 몰리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축산업을 국민의 식량자원으로 보고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적극 대처하며 현인들이 축산인들의 요구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협상과정이나 전에 타결되었던 WTO등에서 보면 마치 쌀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 주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는 협상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협상전략은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금년 안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나 날 듯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축산업에는 불리한 모습이 비쳐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정부의 의연한 대처와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슴 펴고 살수 있도록 협상단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회원 여러분 !

최근 축산업 동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계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축장시설 점검반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팀이 시설확

인을 하면 10월경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한(육)우와 양돈부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육우 전망치를 보면 9월중에 사육두수가 200만두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도 그동안 유명브랜드를 육성하여 개량을 계속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보다는 관행적으로 키우는 사육농가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며 한우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육우고기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산쇠고기와 경쟁을 피하려면 더욱 질 좋고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 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젖소는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계속해서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수뿐 아니라 사육호수도 2003년 12월 10,600호에서 2006년 6월에는 8,600호로 3년사이에 2,000여호가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으며 젖소사육농가에서 한우사육농가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회원 여러분!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은 다른 축산업자와 다르게 끝없이 연구하고 개량사업을 열심히 하여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소득의 향상으로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다 보면 또다시 희망의 길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노력한 보람이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